

2010 사업계획

회원위한 연례 사업 대폭 지원키로

2010 정기총회 2월 26일 이따네마 ... 새해 예산안 확정

사우회 사무처는 2010년도에도 그동안 회원들을 위해 실시해 오던 연례사업을 빠짐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2010년 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 26일 (금) 정동 이따네마 관광식당에서 열린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9년도 결산과 2010년도 새해 예산안을 회원들의 동의로 확정 짓게 된다.

4월 등산 낚시 시작으로

5월 양주단합대회, 11월 바둑

12월 송년의밤 행사로 이어져

사우회는 또 회원들의 건강과 친목, 단합을 위해 구성원 각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동호회 행사(오른쪽 표참조)로는 낚시와 등산대회가 4월에 시작되는 것을 비롯해서 5월

에는 회원 단합대회가 양주 문화동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원로회원 산업시찰 (문화탐방)과 바둑대회는 6월에 갖고 송년의 밤 행사는 12월에 개최한다.

낚시 대회	4월, 10월 / 정소 추후결정
등산 대회	4월, 10월 / 북한산등반
회원단합대회	5월 / 양주 문화동산
골프 대회	5월, 9월 / 충주 중원골프클럽
바둑 대회	6월, 11월 / 사우회 사무실
원로회원 산업시찰, 문화탐방	6월, 10월
송년의 밤	12월 / 서울 마포 가든호텔

신년사

사우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비록 그 같은 결심들이 作心三日이 되기도 하지만, 더러는 뜻대로 성공해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다함께 꿈을 안고 희망찬 올 한해를 향해 달려갑시다.

저는 올해 욕심을 버리고 하루 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다짐을 해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바른 삶. 그것이 성공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방송 사우회 회원 모두가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 합니다.

지난해 문화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만 서서히 경영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庚寅년 새해, 문화방송이 白虎의 기세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즐겁고 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인년 새해 회장 강 영 구



◁ 2009 송년의 밤

박근숙 교문의 건배제의 사진왼쪽부터 우윤근 전회장, 이현의 전사장, 박근숙 교문, 강영구 회장, 김민식 전회장

2009년 MBC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9일(수)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열렸다. 2년만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488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MBC에서 저녁식사와 선물 (잡곡6종세트), 그리고 다이어리를 제공 했으며 방문진, 정수 장학회, 불교방송에서 화환을 보내 이날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또한 강서구청 풍물놀이패가 우정출연해 사물놀이를 공연 하는등 이날 행사는 2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됐다. 강영구 사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는 "송년모임을 중단하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선언하고 사우회가 회원들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에 앞장서 회원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기영입니다.

새해에도 사우회 가족 모두의 가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MBC에게 2009년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MBC가 태풍의 눈으로 시청자들로부터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주목받은 해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MBC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상승한 프로그램 경쟁력과 임직원의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MBC 사우회를 비롯한 MBC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올해에는 미디어렐과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등 거대한 방송환경의 변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고비마다 빛을 발해 온 MBC의 역력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한 치의 실수 없이 꼼꼼하고 착착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큰 힘이 돼 주시는 사우회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인년 새해 (주)문화방송 사장 대표이사 엄 기 영

MBC MEDIA DRAMA GAME MUSIC LIFE every

www.mbcplusmedia.com

함께
우리 가족은 TV를 본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TV MBC MEDIA

MBC플러스미디어는 언제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기업입니다.

MBC플러스미디어는 드라마 전문 채널 MBC 드라마넷, 버라이어티 전문 채널 MBC에브리원, 게임 전문 채널 MBC게임, NO.1 스포츠 채널 MBC ESPN, 생활 문화 다큐멘터리 채널 MBC900 등 5개 채널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풍부한 시청을 받고 있습니다.

MBC ESPN

MBC GAME

MBC every

MBC DRAMA

MBC LIFE

ESSAY

목소리 나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 해 자
1967년도 입사, 1998년
라디오 본부PD로 퇴직

70년대 초였던 것 같다. 어느 여대 신입생들에게 입학소감을 쓰라고 했더니 "신용과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에 오게 되어 행복하다"고 쓴 사람이 태반이었다고 한다. 당시 방송에서 '신용과 전통을 자랑하는 유한양행'이란 기업PR문구에 익숙해져서 '역사와 전통'이 '신용'으로 바뀐 줄도 모를 만큼 전파미디어의 메시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미디어는 메시지'라면서 오늘날의 디지털혁명시대를 예고한 맥루한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40년 전 쯤, 대부분의 방송인들은 그런 미래를 예측할 겨를도 없고 방송의 발전과 전통의 구축을 염

그 때 그 시대를 아십니까?

편집용 녹음기 차레기다리며 밤 새우고
스톱워치로 녹음시간 재고
돌아서면 스프라이징 테이프 사라져
심지어 남의 방송용 테이프까지 훔쳐 써

두에 두기보다 열악한 제작여건에서 방송 펄크 낼까봐 쫓겨 매지 않았는지 되돌아바라본다.

청취자들도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재건, 성장을 목표로 하던 당시의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던 시절

이라 레지나 바. 박봉과 열악한 조건에서도 낭만과 정열로 일했다
좋은 프로그램 계속 방송하면 좋은역사와 전통 쌓이지요

라디오의 큰 변화라면 80년대 초, 한 시간·두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음악이 거의 가요라는 것, 그리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 시키지 않았던 사투리 쓰는 이의 출연이라고 할까. 60년대 말과 70년대 초까지도 5분, 10분, 20분, 길어야 주간 1회 50분 정도 길이의 녹음제작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고, 지시이나 정

보 교양을 담았다. 정책적으로도 교양과 오락, 생활정보 등 균형 있는 편성이 의무였다.

첨단매체에서 일한다는 긍지로 박봉과 열악한 조건에서 낭만과 열정만이 유일한 무기이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동료들이 많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경제와 문화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방송의 제작여건도 개국 초기와 70년대 초까지는 그야말로 전사시대였다.

녹음할 스튜디오와 방송테이프가 부족해서 일본의 여유도 없이 짜여진 배당시간 때문에 선배와 후배, 동료끼리 심의한 출연자 앞에서 자주 욕탄전을 벌이고, 출연자가 핵심을 못 잡고 알맹이 없는 내용을 얘기할 땐 10분짜리 프로그램을 20분 정도 녹음했다가 10분을 편집해 내야 하는데 그 편집용 녹음기 차레를 기다리느라 밤중에 퇴근하기가 일쑤였다.

그 때 녹음기에는 시간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재는 스톱워치는 50명에 두 개쯤이나 있었단다. 편집용 스프라이징 테이프는 잠깐 돌아서는 사이에 없어지지는가 하면, 제작용 테이프가 모자라서 동료가 애써 공개 녹음·방송도 안 된 것을 슬쩍 가져다가 지워서 쓴 이도 있었고, 경쟁이란 냉정한 풍토에서 좋은 레코드 판을 감춰두고 자기 프로그램에만 쓰려고 독점하는 사람을 통제할 제도나 방법이 없던 일들.

DAB 디지털라디오로 발전한 오늘 후배들에겐 개그로 여겨질 일들이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변화, 발전된 환경을 누리고 살아온 민방 초창기 방송인으로서 이따금 추

억해보는 일이다. 인젠가 사

무실로 전화를 걸어온 친구가 "너의 방송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많구나" 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심 이말은 "들을 만한, 좋은 방송 프로그램이 많구나"로 바꿔 듣고 싶었던 생각이 난다.

민방 초창기처럼 라디오를 들으며 행복을 느낄 호응도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방송하면 좋은 전통이나 역사는 쌓여질 것 아니겠는가.

세계속의 MBC



ANN, 예지원원장
강 영 숙

歲月不待人이라고 했던가. 어느새 반세기가 가까워졌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에서 민간방송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방송사에 길이 남을 것임은 두말이 필요 없습니다.

60년도만 하더라도 동란이후 서울 수복에 여념이 없을 때, 모든 국민들에게 용기와 인내와 협동을 전파에 실어 방방곡곡의 청취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몇 백 명의 사원들.

그 정열은 지금 생각하면 어느 누구의 지지도 없었는데 야근과 무휴일의 근무는 마음 흐릿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나면 그때가 좋았어! 하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오곤 합니다.

현실에서 미래의 꿈을 안고 일심단결, 오로지 청취자들에게 즐거운 프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기획에만 주력했던 스태프들, 지금에 비하면 부족하기 짝이

글로벌 MBC는 선후배가 뭉치는 데서 나옵니다

휴일도 없이 근무하던 그때가 흐릿한 추억으로 남아

는 기계들, 그래도 서로가 연구하고 고치고 해서 흘러나오는 방송이야말로 21세기 치열한 경쟁속에서 당연히 1위를 확보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흘러갑니다. 창사 50주년을 앞에 두고 지금의 MBC는 눈부시게 비약, 발전을 했습니다.

전 사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50여년 세월속에 원로가 되어 지금은 사우회라는 모임속에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후배들을 지켜보며 정신적인 성원을 보내고 있는 1,200여 선배회우들, 최신 기계에나 엘리트 후배 사우들,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知, 德, 體 중에서 德을 먼저, 體 행동을 바르며, 다음에 知가 따라야 품위라는 사훈에 손색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트 후배사우와 많은 연륜속에 든든한 선배사우가 서로 힘을 합한다면 두말이 필요없는 세계속의 MBC 문화방송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호회장 올해 계획



등산클럽 : 올해는 대마도와 백두산에 오를 계획

매년 봄-가을에 사우회가 주관하는 북한산 등반을 비롯해서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에 쉬지않고 실시한 등산모임에 꾸준히 참가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해 다녀온 중국 석도 곤륜산 등산도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는 중국에도 일본 대마도와 백두산 등 해의 등산도 많이 할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사우회 동호회 가운데 회원이 가장 많은 자부심을 지켜 나갈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산에 오르겠습니다. (회장 김진호 / 총무 박한성)



남시클럽 : 밤남시 한두차례 더 출조할 예정

지난해는 조황이 좋지않아 회원님들 실망시켜 드린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봄-가을 정기 행사외에 올해는 밤남시를 한-두차례 더 나갈수 있도록 사우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또 월척하는 회원님들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장소도 더 개발 하고 특히 바다남시도 나갈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회원님들 새해 건강하시고 밤마다 大魚庫 꾸시기 바랍니다. (회장 정종국 / 총무 경진근)



바둑클럽 : 1·3·木 친선바둑모임, 정신건강 도모

정신적인 건강이 한층 강조되는 것이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의 과제인것 같습니다. 체력을 튼튼히 하는 틈틈이 정신적인 건강도 꾀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새해 들면서 모든 이들이 갖게 되는 다짐일 것인니다. 바둑 동호회는 봄, 가을로 나누어 회장배 대회를 가질뿐만 아니라 매달 첫째, 셋째 목요일마다 친선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서 바둑도 즐기면서 정신건강(치매 예방)도 함께 도모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것이 새해를 맞으면서 갖게되는 바람입니다. (회장 신대근 / 총무 김진홍)



골프클럽 : 실력대결 보다 소통하는 골프, 월별 모임 추진

마음의 건강과 행복은 건강할 때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찾기 위한 골프 모임이 되기 위하여 사우회 공식 행사가 봄(4-5월)과 가을(9-10월)에 10개 팀(40명)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킹과 장소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자주 만나서 골프 실력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골프 모임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분기 또는 월별모임을 검토 중입니다. 많이 오셔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어 사우 여러분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회장 김용빈 / 총무 백하현)

회원동정



최창봉 전사장 출판기념회

영원한 PD의 방송인생과 한국방송 회고록 - 1월 25일 프레스 센터

최창봉 前MBC사장의 "방송과 나"(사진) 출판기념회가 1월 25일 (월) 저녁6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 책에는 영원한 PD로 불리는 최창봉의 방송인생과 한국방송을 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창봉은 지금도 (사)한국방송인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방송후배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기도(보도) : 나자렛대학교. 10월 20일,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연구실장으로 취임했다. (전화 : 02-757-6612)

박우정(보도) : 방송기자클럽회장. 12월 1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방송기자 클럽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2009 BJC보도상 및 홍성현 언론상 시상식을 가졌다.

우윤근(고문) : 10월 31일 금혼식을 맞아, 광진구 중곡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중 결혼50주년 이상된 67부부 백악관 예식장으로 초청,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축하와 봉사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영복(보도) : 인천일보 부사장. 아들 성준군이 11월, 제 51회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해 올 3월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있다.

양영철(보도) : 한림대 언론정보학부교수. 2번째 저서인 "TV뉴스의 이해"를 11월 26일 출간했다. 이 저서는 방송저널리스트의 역할을 강조하고 TV뉴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명호(현재) : MBC미술센터부장.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미술관 가는 길'에서 8번째 개인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는 풍경화와 정물화등 유화 40점이 선보였다.

한귀현(관리) : MBC감사. 12월 2일 중앙대 언론문화회가 주최한 "2009년 자랑스런 중앙언론인상" 시상식에서 방송부문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이수홍(고문) : 경주마 "백광" 마주. 무릎 부상에서 재기한 "백광"이 11월 중순, 대통령배 경마대회에서 준우승하고 획득한 상금 4천만원을 말(백광) 이름으로 12월 26일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이만우(고문) : 1월 7일 낮 12시 음식점 다정에서 신년오찬 모임을 주재했다. 이날 오찬회에는 동호회 회장단과 사우회 관계자등 35명이 참석했다. 이 고문은 지난 2006년부터 신년 초창 오찬모임을 주재해 왔다.

차 한 잔

전 부산MBC 사장 / 현 코마코 회장 이 태 림



“독립 광고대행사의 새로운 20년 역사를 써야죠.” 독립 광고대행사로서는 드물게 지난 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코마코(KOMACO · Korea Marketing Communication). 광고주와의 돈독한 신뢰 관계와 가족 같은 사내 분위기 덕에 가능했다는 게 이태림 회장(1933년생)의 설명이다.

“20년 장수 비결은 광고주와의 신뢰, 가족 같은 사내 분위기 덕이죠”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츠’ 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터

그러나 코마코도 지난 해 금융위기의 칼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고. “광고 산업은 경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난 해와 같은 경기침체는 사실 치명타죠. 다행히 별 타 없이 한해를 넘기기 했지만 60명의 직원이 53명으로 줄어드는 아픔을 겪었어. 특히 독립광고대행사는 인하우스 에이전시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은 셈이죠. 100m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독립광고대행

보니 결국 광고더라고요. 마침 당시에 광고 회사들이 활발히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MBC에서 광고기획부를 만들던 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먹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온 거죠.”

열정과 긍정적 사고, 도전정신 만큼은 한 순간도 놓치지 살고 싶지 않다는 그는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인 덴츠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사무엘 윌란의 <청춘>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독립 광고대행사 업계 1, 2위 다름...10년 이상 된 광고주도 있어 한 평생 광고인으로서의 삶...힘들 때도 있었지만 천직으로 여겨

사는 출발선, 인하우스 에이전시(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는 30m 앞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서 광고영업과 경영인으로서의 삶을 두루 경험하며 열정을 쏟아낸 그였지만 광고 일이 너무 힘들어 다시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부산MBC 사장을 끝으로 퇴임한 후 뭘 할까 고민을 하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시인인 제 삶의 가치관과 맞닿아 있어서 애송하고 있어요. 광고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도 유효하거든요. 일찍이로 인정받는 광고인, 광고회사가 되기 위해 올 한해도 열심히 뛰어야죠.”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경조사항

결혼

- 김조곤(편제)차남 11/1 노홍식(편제)장남 11/1
- 윤봉기(관리)장남 11/7 정진도(전주)차녀 11/7
- 정경석(관리)장녀 11/13 나명수(관리)장남 11/14
- 석종현(관리)차남 11/15 석종현(관리)차남 11/22
- 이상범(관리)아들 11/29 정태용(기술)차남 11/29
- 김상욱(편제) 딸 12/5 조강대(업무)장남 12/6
- 서정남(편제)차남 12/13 박창순(대전) 딸 12/19
- 하광언(보도) 딸 12/26
- 박원웅(편제)차녀 1/9 한귀현(관리)장녀 1/9
- 유길춘(편제)차녀 1/16 이대교(관리)장남 1/16
- 박원웅(편제)차녀 1/9 한귀현(관리)장녀 1/9
- 유길춘(편제)차녀 1/16 이대교(관리)장남 1/16

부음

- 최인열(기술)모친상 10/16 성경환(ANN)장모상 10/26
- 유조동(관리)장모상 10/29
- 김재철(보도)장인상 11/3 김영수(관리)아들사망 11/15
- 유제국(편제)장모상 11/16
- 최경섭(관리)장모상 11/18 원병희(편제)장인상 11/21
- 박순호(관리)모친상 11/26
- 이하규(편제)장모상 12/1 안남래(관리)시모상 12/7
- 전용인(기술)부인상 12/13 김영수(보도)장모상 12/16
- 편일평(보도)장인상 12/21 김경명(보도)장모상 12/28
- 백성원(관리)장모상 1/7
- 박종현(업무)회원별세. 2009년 12월 28일, 향년 75세. 1969년에 입사, 라디오 영업부장을 지냈으며 퇴사(1981년)후에는 지하철광공업부를 대행하는 (주)國電 영업을 사를 역임했다. 5년전부터 당뇨 치료를 받아왔는데 死因은 저혈당으로 밝혀졌다.

경사

- 팔승** | 이웅희(前사장) 1/26 이상설(前감사)2/17
- 임평혁(편제)3/25 이정호(미주)3/26
- 조동호(관리)3/29
- 고희** | 이양길(보도)1/7 박창복(업무)1/9
- 김인규(관리) 1/11 황학구(편제)1/17
- 정종숙(ANN)1/23 이유동(전주) 1/25
- 백병기(전주) 2/6 윤길일(기술)2/10
- 이종성(기술)2/12 이명수(춘천) 2/25
- 정 준(편제)3/7 하광언(보도)3/12
- 이상훈(업무)3/21
- 회갑** | 홍종명(편제)1/11 김순홍(대전)1/17
- 정태식(기술)2/4 이석원(관리) 2/9
- 최영호(편제)2/16 조태병(편제)3/23
- 황형정(관리)3/26

연회비 내신분들

평생회비

- 한박부(보도)10/15 정 준(관리)10/20 정충성(보도)10/29
- 장덕수(편제)10/30 김성욱(편제)11/18 선병조(편제)11/20
- 정복근(편제)11/20 정환웅(편제)11/24 강세영(편제)11/24
- 이봉수(편제)11/24 조영배(편제)11/24 류재영(편제)11/26
- 안호명(편제)11/26 이명재(편제)11/26 이희재(편제)11/30
- 류상철(편제)12/04 안남래(관리)12/11 윤상호(기술)12/31

연회비

- 10월** 김광목(01~12) 김충창(09) 김준영(09) 김진호(09) 김춘규(09) 김충남(04~09) 박채규(09) 서규석(06~07) 선남준(09) 유순옥(09) 옥창용(05~09) 은희현(08~14) 이환희(07~09) 정명규(09) 김충남(04~09) 박채규(09) 서규석(06~07) 선남준(09) 유순옥(09) 옥창용(05~09) 은희현(08~14) 이환희(07~09) 정명규(09) 최희태(05~09) 홍순홍(00~09) 황학구(09)
- 11월** 강 건(02~17) 김선희(09) 김성호(09) 김영수(관리, 03~13) 김재영(09) 김해원(07~10) 나종인(09~15) 노영인(09) 박민정(09) 박수명(09) 박영선(08~09) 박찬순(09) 반주원(09) 방영희(07~09) 서은선(09) 신형창(06~10) 안종순(09) 안주원(09) 이명자(09) 이인숙(09) 이화옥(07~09) 임국희(09) 전병욱(07~09) 전한호(09) 정영희(09) 조규보(07~09) 조한건(09~10) 최경섭(07~11) 최근수(10) 최은형(08~09) 최화순(09) 한영희(09) 황경자(09) 황우성(09)
- 12월** 강 건(18) 강철용(09) 고은원(10~13) 김광웅(06) 김상균(04~18) 김세중(10) 김용웅(06~09) 김우중(06) 김진홍(10) 박근학(08~09) 박명희(08) 박수호(07~09) 박순호(10) 박영달(09) 박종완(09) 박종현(04~09) 서동식(09~10) 손도정(10) 송인희(07~09) 신명수(10) 신명현(06~08) 신병호(09) 안영순(11) 오정수(07~09) 오학식(06) 윤여중(09) 이대교(10) 이명수(09) 이상제(10) 이상훈(02~04) 이소진(08~09) 이영일(10) 이용구(10) 이종섭(09) 이창우(09~10) 이하규(05~09) 이한식(09~10) 임봉주(10) 임이랑(08~09) 전용인(04~05) 조혜숙(08~09) 최대홍(09) 최영복(09~10) 최창업(07~11) 하영현(09) 한정돈(09~10)

전화/주소변경

[편제]

- 김광웅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66-14 현우주택 201호
- 원병희 010-5247-4544
- 장인순 032-322-3134 부천시 원미구 중1동 미리내마을 동성A 922-906
- 전미경 010-4929-0287
- 정영기 010-6403-3046
- 한숙동 010-9105-1393
- 장우식 031-944-7668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파주운정택지 지구A 17-1 한울마을 413-202

[보도]

- 공대식 010-3341-2519
- 김상균 010-5249-9312

[관리]

- 고은원 김포시 북변동816 풍년마을 동남A 219-801
- 김우중 010-5096-5870 영동군 매곡면강진동 456-1
- 윤재희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925-1
- 이의린 마포구신수동429-9 동해그랑빌 103-202
- 전용립 010-5218-1848
- 조일동 양천구목1동932 목동 현대1차A 102-1802
- 조재성 010-4015-8113

[업무]

- 이병현 파주시조리읍대원리 동문그린시티 502-1502
- 이용구 010-5310-3850

[기술]

- 양홍열 양천구 신월2동 606-21 대명연립 305호
- 임준석 010-5288-5502

[A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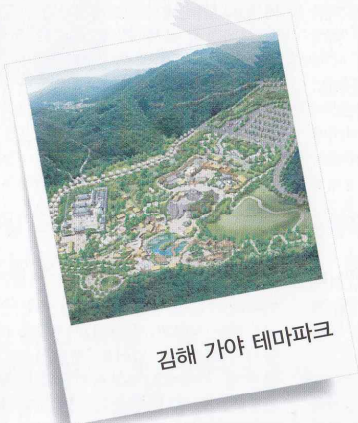
- 김선희 070-7718-6449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122 금강A 103-2101
- 정홍숙 010-5225-0882 강동구 천호2동 427-3 엘크리주상복합 A-1601

[전주]

- 김은택 010-3682-6835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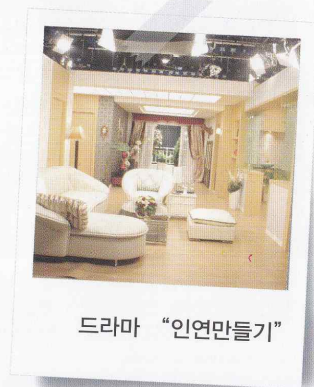
- 류근수 010-5105-8807



김해 가야 테마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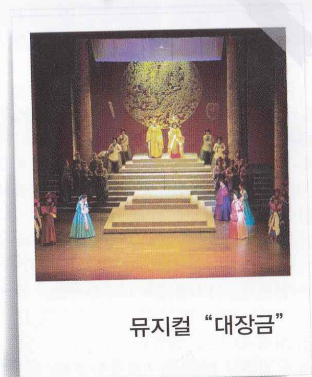


드라마 "선덕여왕"



드라마 "인연만들기"

국내최고의 미술소셜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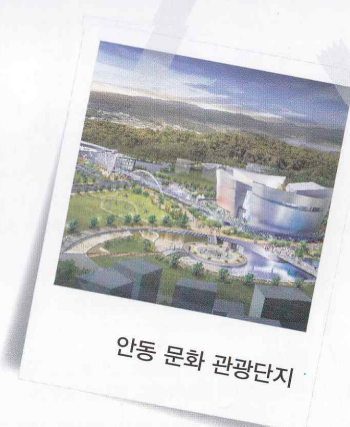


뮤지컬 "대장금"

MBC 미술센터

방송 미술 | 영화 미술 | 이벤트, 공연 | 전시 | 테마파크 | 캐릭터

www.mbcart.com 031-936-0000 (대표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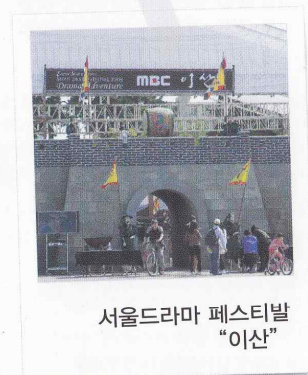
안동 문화 관광단지



생방송 오늘아침



롯데월드 "Star Avenue"



서울드라마 페스티벌
"이산"